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7 | 황홀한 실종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 되
나요?

이번 작품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 (1) '쇠창살'의 의미와 창살 안과 밖의 의미를 묻는 문제
- (2) 작품의 주제와 결말을 묻는 문제
- (3) 윤일섭의 병증의 원인을 묻는 문제



'쇠창살'의 의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주인공 윤일섭에게 있어서 쇠창살을 아주 중요한 의미란다. 이 작품
을 관통하는 핵심 소재이지. 쇠창살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도구
이자, '선택 받은 자'들을 보호하는 도구라고 윤일섭은 생각한단다.
쇠창살 안은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선택 받은
자들의 공간이고, 쇠창살 밖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모욕적인 눈길 속에
서 방황하는 자들의 공간이지.



이 작품의 결말은 어떻게 되고 주제는 뭔가요?

나중에 윤일섭은 사자 우리에서 사자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사자 우
리 안으로 들어간단다. 기성 체제의 질서에 편입되고서도 그 체제로
부터 탈락, 배제 되지 않기 위해 그 체제를 순응해 살아가는 모습과
그 이면에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이 겹쳐져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



결말과 주제를 알고 보니 더 재밌네요~
그럼 결국 윤일섭의 병증도 그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겠네요?

맞아~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보자.



나무아카데미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7 | 황홀한 실종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윤일섭이 병증을 앓게 된 원인 중 하나)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상하가 뒤바뀌어 서로 어긋남.)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안과 밖을 나누어 보는 도착 증세와 문 안으로의 지향을 보이는 윤일섭이지만, 손 박사는 윤일섭의 도착 증세가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욕망에서 온 것이라고 잘못 판단함. **안정을 추구하는 개인(윤일섭)과 이를 억압하는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손 박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그쯤 이르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에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는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 형의 질문 가운데에 해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 형의 참욕망을 윤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 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런 **식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윤 형의 마음 가운데 **식창살**(윤일섭의 관점으로는 식창살이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인 안쪽과 그로부터 쫓겨나 떠돌아야 하는 이들의 공간을 확고하게 이분하는 일종의 분계선임. 체제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윤일섭이 생각하는 식창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남아 있는 한 윤 형에겐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 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글썄, 이 세상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 형은 은행 식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식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일엔 지금 윤 형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윤 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창살의 안이거나 바깥이거나 윤 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윤 형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예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그 윤 형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식창살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창살 안과 밖으로 구분 지어 생각하는 윤일섭의 문제점을 지적함.)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그 식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손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사회에는 선택받은 자만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식창살’이 있다고 주장함. **중심인물인 윤일섭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문**(과거 윤일섭은 학교 체제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 시위를 한 경험이 있음. 기존의 시위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윤일섭이 남들과 다른 태도를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음.)이나 **은행 창구**(현재 윤일섭이 일하고 있는 곳. 은행 내에서 승진하고 체제에 머물기를 바람.)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 형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 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 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진 모르지만 적어도 윤 형네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한데도 윤 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 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쇠창살의 환영**(윤일섭이 마음속에 있는 ‘쇠창살’을 부수어야 한다고 조언함.)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식 없애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 보라는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희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 형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 형은 누군가가 윤 형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 형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지요.**(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이 윤일섭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임을 설명함.) 그런데 윤 형의 그런 **자기방어 욕망**(윤일섭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안주에 대한 욕망과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감.)이 윤형에게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뚝뚝하게 표현되질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 형은 그 자기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이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 형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어 가게 될 겁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에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 윤일섭이 자신의 병증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 가자 그의 유희옥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런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 주는 따위의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 갔다.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섭은 입원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곧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문제가 발생할 것을 암시함.)되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되어 가고 있다면서, 뭇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손 박사에 대한 일섭의 신뢰감이 깨지게 되는 공간. 해당 장소에서 윤일섭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손 박사로서는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는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런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 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중략)

【사자 우리 앞에 물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거나 앓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거나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선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런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비판적, 풍자적
- 주제: 평화와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과 이를 억압하는 현실
- 특징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되, 장면에 따라 시선을 바꾸기도 함.
 - 개인의 평화와 안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 억압을 보여줌.

줄거리

은행원 윤일섭은 승진에서 몇 차례 탈락하면서 의식의 도착증, 가학성 유희욕, 대인 기피증 등의 증세를 보여 손 박사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윤일섭은 학창 시절의 시위 경험에 대해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도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손 박사는 그러한 안으로의 지향이 사실은 밖으로의 지향이라고 해석하면서 은행원으로서의 일섭이 은행 문 바깥의 자유를 욕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신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며 일섭을 설득한다. 일섭은 갑자기 실종되고 그 후 일섭의 아내와 함께 손 박사를 찾아온 직장 동료는 손 박사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윤일섭은 결국 동물원에서 사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현병(정신 분열증) 환자인 일섭이 과거에 대해 보이는 도착을 통해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과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의 억압을 보여 준다. 대학 시절을 시위 등으로 어수선하게 보냈던 일섭은 은행에 취업하며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만 승진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며 언제 은행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이와 같은 인물을 통해 기성 체제의 질서에서 탈락, 배제되지 않기 위해 순응하고 살아가며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7 | 황홀한 실종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그쯤 이르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에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는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 형의 질문 가운데에 해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 형의 참욕망을 윤 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 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런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윤 형의 마음 가운데에 쇠창살이 남아 있는 한 윤 형에겐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 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글썄, 이 세상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 형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감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일엔 지금 윤 형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윤 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창살의 안이거나 바깥이거나 윤 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윤 형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예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그 윤 형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쇠창살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 형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 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 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진 모르지만 적어도 윤 형네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한데도 윤 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 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숴 없애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 보라는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희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 형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 형은 누군가가 윤 형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 형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지요. 그런데 윤 형의 그런 자기방어 욕망이 윤형에겐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뚫뚫하게 표현되질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 형은 그 자기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이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 형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어 가게 될 겁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에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 가자 그의 유희욕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런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 주는 따위의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 갔다.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섭은 입원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곧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되어 가고 있다면서, 뭇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손 박사로서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는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

도 좀 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런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 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중략)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가 잔뜩 죽어 있었다.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거나 앓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거나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선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런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다.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 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던 세 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 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향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

[A]

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꺾어 댄 셈이었다. 참으로 껄스름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우리 너머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라 단정하려 든다면,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 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판내 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 버린 그 가학성 유희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

- 이청준, 「황홀한 실종」

*창경원: 일제 강점기에, 창경궁 안에 동·식물원을 만들면서 불렀던 이름.

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장면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윤일섭이 '쇠창살'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손 박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② ㉠은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왜곡된 기억이 '마음속의 쇠창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손 박사의 생각을 드러내 준다.
- ③ 윤일섭은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몰려는 손 박사의 음모가 ㉠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은 정작 '쇠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에 제시된 '쇠창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에서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윤택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윤일섭에게 '쇠창살 안'은 기분 좋게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이다.
- ② 윤일섭에게 '쇠창살 안'은 선택받은 자들이 외부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서 방황하는 공간이다.
- ③ 윤일섭에게 '쇠창살 안'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은행 밖이다.
- ④ 윤일섭에게 '쇠창살 밖'은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이다.
- ⑤ 윤일섭에게 '쇠창살 밖'에 대한 욕망은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욕망에서 기인한다.

4. 윗글을 바탕으로 윤일섭의 심리를 해석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 박사의 치료 방식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창경원 방문 이후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 ③ 쇠창살을 통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존의 사고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 ④ 맹수와 원숭이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위계질서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
- ⑤ 손 박사를 기득권층으로 단정짓고 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여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인물의 외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작품 속 관찰자의 객관적인 서술을 통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의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주관적인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윗글에서 윤일섭이 창경원의 사자와 원숭이의 모습을 통해 얻은 '각성'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깨닫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자각함.
- ②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함을 깨달음.
- ③ 쇠창살 안과 밖의 위계질서가 사회 현실에 반영된 것이며, 이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임을 인정함.
- ④ 마음속 쇠창살을 제거하라는 손 박사의 조언이 잘못된 처방이었음을 깨달음.
- ⑤ 맹수의 위협과 원숭이의 재롱을 통해 억압된 욕망을 해소하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자각함.

7.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쇠창살 안의 '안락함'과 '여유'를, ㉡은 쇠창살 밖의 '불안'과 '방황'을 대비적으로 드러낸다.
- ② ㉠과 ㉡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됨을 보여준다.
- ③ ㉠과 ㉡은 윤일섭이 쇠창살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의 상징으로 인식함을 드러낸다.
- ④ ㉠은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라는 표현을 통해 쇠창살 안의 삶이 피지배 계층에 대한 우월감에 기반함을 암시한다.
- ⑤ ㉡은 '모욕적인 눈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쇠창살 밖의 인물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내면에 있음을 강조한다.

【8~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그쯤 이르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에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한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 형의 질문 가운데에 해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 형의 참욕망을 윤 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 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런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윤 형의 마음 가운데에 쇠창살이 남아 있는 한 윤 형에게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 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글썄, 이 세상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 형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일엔 지금 윤 형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윤 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창살의 안이거나 바깥이거나 윤 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윤 형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예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그 윤 형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쇠창살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 형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 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 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진 모르지만 적어도 윤 형네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한데도 윤 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 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식 없애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 보

라는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희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 형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 형은 누군가가 윤 형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 형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지요. 그런데 윤 형의 그런 자기방어 욕망이 윤형에게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뚫뚫하게 표현되질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 형은 그 자기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이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 형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어 가게 될 겁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에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 가자 그의 유희욕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런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 주는 따위의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 갔다.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섭은 입원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곧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되어 가고 있다면서, 뭇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

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하듯 충고를 덧붙였다. 손 박사로선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는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런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 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중략)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가 잔뜩 죽어 있었다.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거나 앓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거나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선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런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다.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 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 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향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인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꾀어 낸 셈이었다. 참으로 꾀스럼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우리 너머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라 단정하러 든다면,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 밖에 없었다. 녀석을 곁판에 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 버린 그 가학성 유희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

- 이청준, 「황홀한 실종」

*창경원: 일제 강점기에, 창경궁 안에 동·식물원을 만들면서 불렀던 이름.

8. 윗글에서 윤일섭과 손 박사의 대화에 나타난 ‘쇠창살’에 대한 관점 차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일섭은 쇠창살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손 박사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② 윤일섭은 쇠창살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손 박사는 수용해야 할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 ③ 윤일섭은 쇠창살을 안과 밖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 박사는 소통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윤일섭은 쇠창살을 불안의 근원으로, 손 박사는 성장의 촉매로 인식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윤일섭은 쇠창살을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로, 손 박사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환영으로 인식하고 있다.

9. 윗글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난 윤일섭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겸허한 태도
- ②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연한 태도
- ③ 타인의 조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신중한 태도
- ④ 현실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저항 의지를 불태우는 비판적인 태도
- ⑤ 자신의 경험과 다른 주장에 대해 반발하며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고집스러운 태도

15.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수: (앉으며) 아니 방 안이 왜 이렇게 웅하게 됐니? 아니 씨름판을 벌이니? 담요를 왜 깔아 놓고 야단이나.

상룡: 네 아버지. 오늘은 뭐 좀 배는 게 있어서요.

정수: 아니다. 늑게 배는 게 다 뭐야. 대관절 뭐냐.

경원: 예구 아버지두. 왜 접때두 아범이 배지를 앉았습니까?

정수: 오— 그래그래, 툭툭툭 치고 광광 나가 떨어지는 거 말이나.

상룡: 네 바루 그것입니다.

정수: 아니 그까짓 것은 배서 뭐 하니? 씨름판을 나갈 테냐? 전장판을 나갈 테냐?

상룡: 허— 아버지는 좀 덜— 아셨습니다. 싸움판이나 전장판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라 다만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술 연습입니다.

정수: 뭐? 호신술 그게 무슨 소용야. 너 같은 사람이 체면과 명예두 생각해야지.

상룡: 예구 아버지께서는 똑 옛날만 생각하십니다그려. 지금은 그전과 다르답니다. 노동

자들이, 더군다나 지금에는 직조 공장이 스트라이크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정수: 그렇지만 법이 있지 않냐. 밤중도 대낮 같은 세상에서 그까짓 게 뭐 무서우냐? 그리고 이번에도 죄 잡아갔는지…….

경원: 예구 아버지께서도 딱하십니다. 아무리 앞잡이 연놈들은 잡아갔다고 하드래도 다 — 들 야단인 것을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고것들은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하든데요.

상룡: 그러구요 아버지. 인제는 노동자들이 여간 지독한 것들이 아니에요. 전에는 몇만 잡아 두면 흐지부지되든 것이 저, 아니 이번엔 당초에 쇠덩이같이 모여서 야단이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데모를 하느니 공장을 습격하느니 우리 집을 쳐 온다니 하는 별 소문이 다 나는데요.

경원: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생길는지 누가 알아요.

정수: 글썄 그렇지만 그것들이 설마 손이야 대겠니?

상룡: 설마가 뭘니까? 작년에 서쪽 어느 곳에서는 국숫집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했답니다. 그때도 온밤 중에 노동자들이 여러 패를 갈라 가지고 모두 들이부셨답니다. 그때 통에 어느 집주인은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을 부상을 당했대요.

— 송영, 「호신술」

- ① 학생 1: 윗글의 '윤일섭'은 쇠 울타리 안에 들어가 기득권층이 되고 싶어 해.
- ② 학생 2: <보기>의 '상룡'은 호신술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
- ③ 학생 3: 윗글의 '윤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를 따르기 위한 노력을 했어.
- ④ 학생 4: <보기>의 '정수'는 호신술을 배워야 한다는 '상룡'의 의견을 따르게 돼.
- ⑤ 학생 5: <보기>의 '정수'는 노동자들이 기득권층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교재 수록 외 지문 문제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자가 횡설수설 지껄여대고 있는 이야기들로 미루어 보면, 그는 아마 대학 시절에 말썽쟁이나 피운 데 모꾼이었던 것 같았다.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 학교 시절의 시위에 관한 회상이 분명했다.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반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의 회상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그는 교문을 뛰쳐나오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는 주장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오려 했던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쪽에 기억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오려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 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학교 시절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고 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종종 그 은행 시절까지 이야기를 훌쩍 비약해 버리는 일이 흔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맘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뚫어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도 사실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문이 아니라 은행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더군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분 모르실 겁니다. 하하……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덴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로 척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 선 안으로 밀려들어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선 이미 그 철창문 안에 다 자리를 잡아 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철 새 없이 틈입자들을 감시하고 그 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지요. 안쪽 사람들은 그 채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언제 그 사람들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앞쪽 식당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한 제일 방어선은 은행원들 중의 제일 쫓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 다음 제이선에서 그 쫓자들을 지휘 독전할 자리는 대리급 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완전한 피라미트 포진이지요. 이렇게 되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은 식당살 밑의 쫓자들 처지임이 뻔하지요. 싸움만 벌어졌다 하면 제일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할 친구들은 바로 그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틈만 나면 늘 한 발이라도 뒷줄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싶어 안달 아납니까. 승진이라는 게 뭘니까. 승진이라는 게 바로 그 일선 창살 아래서 한발이라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는 것 아납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걸 바라지요. 그리고 좀처럼해선 마음을 못 놓습니다. 싸움이 촉박하면 촉박해질수록 말입니다. 그런 점을 죄 알아차리고 보면 우리가 학교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시위를 벌이면서 소망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은행 사무실의 그 희한하고도 음흉스런 좌석 배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지요…….”

견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

[중간 줄거리] 윤일섭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자 그의 아내가 일섭의 직장 동료와 함께 손 박사를 찾아온다.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박사님의 그 치료법에 대해서라면 제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일섭의 동료라는 사내가 불쑥 손 박사의 말꼬리를 덮쳐들어 오고 있었다.

“그야 물론 박사님의 진단이나 처방은 박사님 전문 분야에 속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박사님께서 환자를 그렇게 근거 없이 함부로 다뤄 오셨을 리도 없는 거구요. 그건 아마 저희들로서도 인정을 해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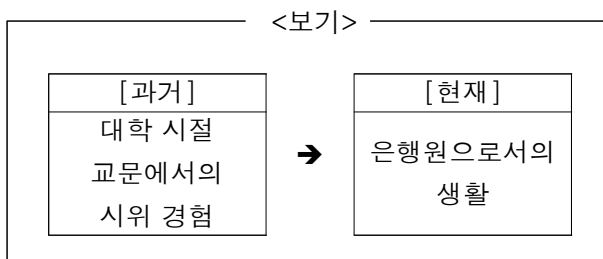
드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일일 겹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모두 시인하고 나더라도 전 처음부터 박사님께 대해 납득이 잘 가지 않은 대목이 한 가지 있더군요…….”

“납득이 가지 않으셨다면 역시 저의 처방에 대해서 말입니까?”

영문을 알아차릴 수 없는 손 박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으니 사내는 점점 더 자신을 얻고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계속해 나갔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처방에 대해서지요. 박사님께선 윤형에게 그 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박사님은 그때 윤형들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을 거라고 자주 말씀해 오고 계셨더군요. 그리고 윤형이 직장 사무실에 들어앉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그 자리를 내쫓겨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가 아니라, 사실을 그의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고 싶은 욕망에서였으리라는 식으로 말씀입니다……. <중략> 무식한 소리로 우린 정말로 지금 그 문을 나가기도 아늑하고 안정된 문 안의 안주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혀 온 현실의 생활이라는 것일진대, 윤형 역시도 이제 이미 과거의 소망 대신 스스로 그것을 뒤바꿔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 윤형이 그 은행을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윤형의 과거에서 비롯한 도착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기 소망의 한 표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즉 지금의 윤형 처지에서 본다면, 그의 과거 역시 문을 나가려는 쪽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 쪽으로 놓아 두 주는 것이 그의 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일섭은 과거의 시위 경험이 현재의 생활을 얻기 위한 사전 연습이었다고 믿는 비약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 ② 윤일섭은 과거에 학교를 뛰쳐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학교에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 ③ 손 박사는 윤일섭의 기억이 전도된 이유를 과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으로 진단하고 현재에 충실할 것을 처방하고 있다.
- ④ 윤일섭의 직장 동료는 손 박사와는 달리 윤일섭의 행동이 은행이라는 경쟁 체제에서 배제될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⑤ 손 박사는 현재 윤일섭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 교문을 나오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은행을 박차고 나가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7. <보기>는 위 글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윤일섭은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 박사가 동물원에 들러 바람을 쐬고 돌아가라고 제안한다. 동물원에서 원숭이와 사자를 구경하던 윤일섭은 쇠창살 안에서 제멋대로인 원숭이들의 행동과 위협적인 사자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동물들이 사람을 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음날 새벽 윤일섭은 사자를 우리에서 내쫓고 자신이 대신 그 우리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

- ① 윤일섭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학창 시절에 시위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때문이겠군.
- ②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불만을 가진 윤일섭은 손 박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사자 우리 속으로 들어간 것이군.
- ③ 윤일섭이 사자 우리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자가 은행에서 가장 안쪽 자리를 차지한 자와 마찬가지로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 ④ 사자와 경쟁하려는 윤일섭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군.

- ⑤ 윤일섭이 일상 공간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은행원으로서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다른 세계를 찾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군.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A]는 전지적인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인 윤일섭의 시선으로 손 박사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① 이야기 밖의 전지적인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서술자가 전지적인 입장에서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④ 요약적 진술과 인물 간의 갈등 해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정답 ⑤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는 것은 윤일섭이 한 생각이다. 윤일섭은 손 박사 역시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의 하나라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이 손 박사의 생각이며 ㉠이 이에 상응하는 처방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손 박사는 윤일섭이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문맥상 그 혼란은 쇠창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 박사는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수 없애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 ② 손 박사는 윤일섭의 교문에 대한 의식의 도착 증세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 속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그러한 증세가 모두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손 박사는 ㉠과 같은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 ③ 윤일섭은 손 박사가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를 가지고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몰기 위해 ㉠과 같은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꺾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정답 ①

본문 내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쇠창살 밖’ 설명에 해당한다.
- ③ 윤일섭은 ‘쇠창살 안’의 평화와 안주를 바라는 인물로, 은행 밖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윤일섭은 ‘쇠창살 안’을 희망하는 인물로, 학교는 ‘쇠창살 안’에 해당한다.
- ⑤ 윤일섭은 ‘쇠창살 밖’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쇠창살 안’의 안정성과 안주를 희망하는 인물이다.

4. 정답 ④

윤일섭은 맹수와 원숭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위계질서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쇠창살 안과 밖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쇠창살 안의 존재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맹수와 원숭이의 모습은 오히려 쇠창살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될 뿐, 위계질서에 대한 환멸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① 윤일섭은 창경원에서 손 박사의 의도를 의심하며 치료 방식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문에서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짓이었다.’, ‘참으로 꽤 씹히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등의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창경원, 특히 사자 우리를 보면서 윤일섭은 쇠창살을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지문에서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윤일섭이 들어가고자 하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와 같은 서술에서 이를 알 수 있다.
- ③ 윤일섭은 손 박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쇠창살을 여전히 안과 밖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로 인식하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문에서 ‘손 박사가 뭐라고 꺾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와 같은 서술에서 쇠창살에 대한 그의 강화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⑤ 윤일섭은 손 박사를 '선택받은 자(기득권층)'와 '한 무리'로 단정짓고, 손 박사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 지문에서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기득권층)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와 같은 서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정답] ④

서술은 주로 윤일섭의 시각에서 진행되며, 그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손 박사에 대한 평가, 쇠창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모두 윤일섭의 주관적인 시각을 통해 드러난다.

① 인물의 내면 심리 분석은 드러나지만,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윤일섭의 주관적인 인식과 심리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필연성 강조는 적절하지 않다.

② 대화 내용이 일부 제시되지만, 대화 자체가 중심 서술 방식은 아니며, 외면적 갈등보다는 윤일섭의 내면적 갈등과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면적 갈등 심화 과정은 주된 서술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서술은 작품 밖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⑤ 과거 회상이나 현재와의 교차 서술은 나타나지 않으며, 시간 순서에 따른 선형적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심리 변화 과정은 제시되지만, 과거와 현재 교차를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와 현재 교차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④

지문의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짓이었다.'라는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윤일섭의 각성은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나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자각과는 거리가 멀다.

② 윤일섭은 창경원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사회적 위계질서를 인식하고,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회복은 적절하지 않다.

③ 윤일섭은 쇠창살 안과 밖의 위계질서가 사회 현실에 반영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이를 극복 불가능한 문제로 단정하는 것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맹수의 위엄과 원숭이의 재능은 윤일섭에게 억압된 욕망 해소나 본능 충실한 삶 추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쇠창살 안의 안락함과 안전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될 뿐이다.

7. [정답] ⑤

④의 '모욕적인 눈길'은 쇠창살 안의 '선택받은 자'들의 시선이다. 즉, 이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내면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㉞는 '기분 좋게', '안전한', '보호' 등의 표현을 통해 쇠창살 안의 안락함과 여유를, ㉜는 '쫓겨난', '우왕좌왕 방황', '모욕적인' 등의 표현을 통해 쇠창살 밖의 불안과 방황을 대비적으로 드러낸다.

② ㉞와 ㉜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대립적 구도를 통해 두 계층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됨을 보여준다. 안전한 보호 속의 삶과 쫓겨난 방황하는 삶의 대비를 통해 계층 간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③ ㉞와 ㉜는 쇠창살 안과 밖의 삶을 대비하며, 이러한 구분이 현실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윤일섭이 쇠창살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의 상징으로 인식함을 드러낸다.

④ ㉞의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라는 표현과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다.'에서 쇠창살 안의 삶이 피지배 계층에 대한 우월감을 바탕으로 함을 짐작할 수 있다.

8. [정답] ⑤

윤일섭은 학교 문, 은행 창구 등을 언급하며 쇠창살이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주장한다. 손 박사는 은행 창구를 예시로 들어 쇠창살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일섭 마음속의 환영이라고 진단한다.

① 윤일섭은 후반부에서 쇠창살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만, 대화 전반에서는 개인의 안정과 소속감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주장한다. 손

박사는 일관되게 쇠창살을 개인의 심리적 문제, 즉 마음속의 환영으로 진단한다.

② 윤일섭은 쇠창살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며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므로 극복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손 박사는 쇠창살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수용해야 할 현실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손 박사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윤일섭은 쇠창살을 안과 밖의 단절, 즉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손 박사가 쇠창살에 소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윤일섭은 쇠창살을 불안의 근원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해소해 주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손 박사는 쇠창살을 성장의 촉매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9. [정답] ⑤

마지막 부분에서 윤일섭은 손 박사의 주장(마음속 쇠창살을 부수라는 조언)과 자신의 경험(창경원 사건)이 다르다고 여기며 강하게 반발하고, 쇠창살에 대한 기존의 신념을 더욱 고집스럽게 고수한다.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① 윤일섭은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손 박사를 비난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데 집중한다.

② 윤일섭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쇠창살에 대한 집착으로 연결시킨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연한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윤일섭은 손 박사의 조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반발한다. '주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왜곡된 신념에 더욱 갇히는 모습을 보인다.

④ 윤일섭은 쇠창살을 통해 사회 현실을 '부조리'하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이고, 쇠창살 안으로 편입되기를 갈망한다.

15. [정답] ④

<보기>의 '정수'는 호신술을 배워야 한다는 '상룡'에게 법이 있는데 왜 호신술을 배워야 하냐고 말하

며 '상룡'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① 윗글에서 '윤일섭'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 현실의 체제에 안주하는 기득권층이 되고 싶어 한다.

② <보기>의 '상룡'은 파업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을 배우려고 한다. 즉 호신술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③ 윗글의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에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윤일섭'은 처음 '손 박사'의 진단을 믿고 그의 충고를 따르기 위해 노력했다.

⑤ <보기>의 '글썸 그렇지만 그것들이 설마 손이야 대겠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수는 노동자들이 기득권층인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16. [정답] ③

윤일섭은 과거에 시위를 벌인 경험에 대해 전도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즉 학교에서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시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손 박사는 윤일섭의 이러한 전도된 기억을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고 싶은 욕망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는 진단이나 현재에 충실하라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① '은행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도 사실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문이 아니라 은행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 지더군요.'에서 과거 시위 경험이 현재의 생활을 위한 연습이었다고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는 교문을 뛰쳐나오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는 주장이었다.'에서 윤일섭이 남들과는 달리,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 시위를 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윤일섭의 직장 동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늑하고 안정된 문 안의 안주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윤일섭도 역시 은행을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평범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문을 들어가려고 했다는 과거를 바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

⑤ 윤일섭의 직장 동료의 말을 통해, 손 박사는 윤

일섭이 직장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음을 알 수 있다.

17. [정답] ③

동물원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을 사람들이 구경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윤일섭은 그곳에서 원숭이들의 제멋대로인 행동과 사자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동물들이 사람을 구경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사자 우리 안이 더 안정적인 공간이며, 사자는 자신이 그토록 도달하고 싶어 하는 은행의 가장 안쪽 자리를 차지한 자와 마찬가지로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사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윤일섭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행동인 것이다.

- ① 윤일섭이 학창 시절에 정의로운 세상을 열망하며 시위를 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윤일섭이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불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윤일섭의 직장 동료가 손박사의 처방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④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기득권층과 기득권층을 구분하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윤일섭은 은행원으로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새로운 세계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원으로서 쫓겨날 일 없는 안정을 원하고 있다.